

2018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 “카페 I got everything”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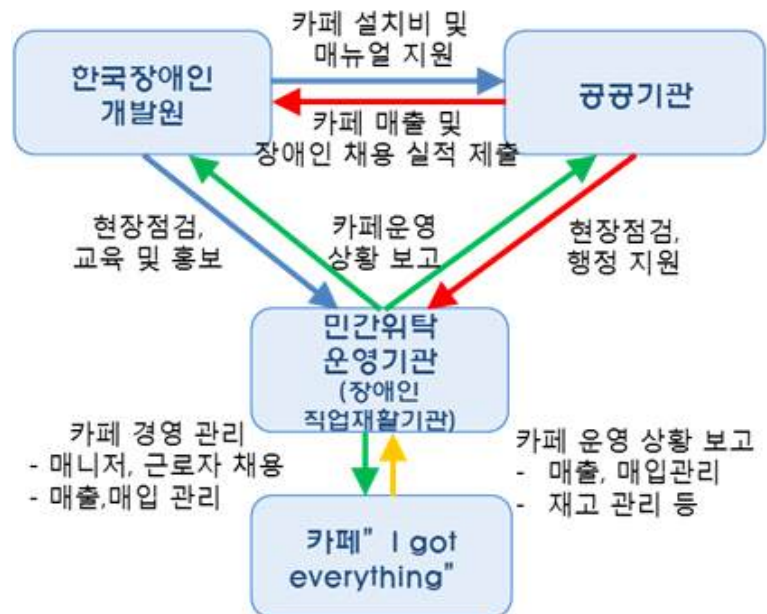
I. 사업 목적

- 바리스타(Barista), 파티시에(patisserie) 등 신규 직종의 직무훈련을 이수한 중증 장애인이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함.
- 대국민에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직접일자리 창출 노력을 홍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

II. 추진방향

- 본원에서 카페 “I got everything” 설치비 6,000만원 내외를 귀 기관에 지원(지원조건: 기관 내 공간 사용료 면제, 최소 3년 이상 중증장애인 최소 2명 이상 채용 및 카페 “I got everything” 운영)
- 장애인 직무지원 및 직무훈련이 가능한 위탁운영기관 선정하여 안정적인 카페 운영 지원

III. 추진체계



IV.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기관 이미지 제고
- 매출·매입 관리, 장애인근로자 채용 등 카페경영을 위탁하여 추가적인 관리 불필요

붙임 중증장애인 공공·민간 연계 신규일자리 창출(카페 “I got everything”) 관련 자료 1부. 끝.

연 번	시·도	선정기관	지점명	호점	비 고
1	서울	강동구청	강동구청점	16호점	
2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로레알코리아점	20호점	
3	부산	부산DPI	해운대점	7호점	
4	대구	달서구청	달서구청점	6호점	
5	인천	인천시청	인천시청점	2호점	
6		인천 서구청	인천 서구청점	4호점	
7	대전	정부대전청사	정부대전청사점	15호점	
8	세종	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점	1호점	
9		세종시청	세종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점	17호점	
10	경기	양평군장애인종합복지관	양평점	14호점	
11		파주시청	파주시청점	18호점	
12		여주시청	여주아울렛점	21호점	
13	충남	천안한들문화센터점	천안한들문화센터점	3호점	
14		홍성군청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점	12호점	
15		아산시청	아산중앙도서관점	19호점	
16	전북	완산구청	완산구청점	9호점	
17		덕진구청	덕진구청점	10호점	
18		전북도청	전북도청점	13호점	
19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점	4월 개소 예정	
20	강원	속초시청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점	5호점	
21		원주시청	원주시 행구수변공원점	11호점	
22		횡성구청	횡성구청점	4월 개소 예정	
23		영월군청	영월군청점	4월 개소 예정	
24	제주	제주도청	제주도청점	8호점	

시장 경쟁력 높은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첫 선



🔍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6-10-08 09:00 기사원문

👍 2 💬 댓글 📄



<앵커 멘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커피 전문점들이 늘고 있지만,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인식을 깨고 맛과 분위기까지 갖춘 장애인고용 커피 전문점이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더더기를 덜어낸 깔끔한 실내장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커피값은 시중보다 저렴하지만, 고품질 원두와 기계 추출로 항상 일정한 맛을 냅니다.

종업원 4명 가운데 3명이 평소에는 일반인과 어울릴 기회가 별로 없는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인터뷰> 임윤경(19살/발달장애인) : "커피향도 좋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니 까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지난 2012년부터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선보이기 시작한 커피전문점이 이번에 '아이 갓 메브리싱'으로 브랜드를 통합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첫 월급 받자 기초수급 반납 ... 활짝 웃은 27세 중증장애인

(90만원)



취업 성공 후 스스로 기초수급을 포기한 중증장애인 홍성표(27세)가 25일 충남 천안 한물문화센터 내 카페숍 '아이갓에브리씽(got everything)'에서 손님과 반갑게 얘기하고 있다. 천안=프리랜서 김성태

뇌병변·언어장애 있는 홍성표씨
"내 힘으로 벌어서 생활하니 더 행복"
카페 취업 - "더 힘든 이들 지원을"
주민센터 "자발적 탈락 거의 못 봐"

지난 5월 17일 충남 천안시 병곡2동주민센터에 청년 하나가 들어섰다. 27세로 뇌병변·언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홍성표씨였다. 복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그는 작고 느리며 어눌한 목소리로 물었다.

"기초수급자 안 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씨는 13년 넘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 중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대달 약 50만원의 생계비가 국가에서 나왔다. 전화요금·전기료·의료비 등 20여 항목도 검연·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런 혜택을 더는 받지 않도록 생계비·주거비·의료비 수급 대상에서 빼 달라고 홍씨가 요청한 것이다. 담당 직원은 받기 지 않는 듯 "왜?" "왜?"를 반복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추후에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탈(脫)수급'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수급자는 흔히 반발한다. 2012년 추가 소득이 발견돼 생계비 지원이 20만원 미만 비장애인이 걸기 20성남시 중원구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흥겨워 휘두른 적도 있다.

홍씨 같은 자발적 '탈수급' 신청은 극히

드물다. 탈수급 조건이 드러날 때까지 종전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홍씨 사례를 접한 양동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수급자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례를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기초수급자는 현재 163만 명에 이른다.

홍씨가 탈수급을 신청한 것은 그가 생애 첫 월급 90만원을 받은 이튿날이었다. 그는 지난 4월 한안시 한물문화센터 1층에 있는 카페숍 '아이갓에브리씽(got everything)'에 취직했다.

지난 25일 본지가 찾아가 보니 그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다. 사중 열공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현금봉투에서 거스름돈을 꺼내는 데도 시간이 다소 걸렸다. 하지만 손님은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는 듯했다. 이 카페숍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연 전국 14개 지점 중 하나다. 홍씨가 2015년 2월 졸업한 나사렛대학교의 나사렛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홍씨는 졸업 2년간 개발원에 요즘 표현대로 '취보'(취업 보조)기, 취업 성공을 의미했다.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절당하며 삽니다. 충주에서 천안으로 이사 왔을 때 고등학교들이 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아 1년 쉬다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 후 면접을 몇 군데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장애만 보는 것 같아요."

나사렛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국장이며 카페숍 전장이기도 한 김중민씨가 그에게 카페숍 일을 제안했다. 홍씨는 자기에게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거절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일단 실습부터 해보자"고 재차 김씨가 제안했다. 막상 도전에 보니 주문을 받고 돈 계산이나 청소를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 20일간 실습을 거쳐 홍씨는 지난 4월 정규직 업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무슨 마음에 탈수급을 신청했을까. "내가 출근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어요. 남들이 보면 연봉 1000만원이 대안하지 않을 거예요. 장애인으로서 자립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진로를 결정하며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컸어요. 내 힘으로 월급을 벌어서 생활하니 저금이 더 행복해요."

그는 "기초수급에만 기대고 있기는 싫었다. 기초수급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직장이 내 출발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딘가에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가면 숨어 있지 말고 나와 서용직이다 보면 같이 생각한다고 믿어요."

그는 첫 월급에서 38만원을 떼서 전전거를 샀다. 자기를 위해 수십만원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제 매일 자정기 배달을 맡아 출퇴근한다.

천안=백수진 기자
peck.socin@joongang.co.kr

공론화위 "2만 명 뽑아 1차 여론조사, 350명 추려 실제 공론조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에서 지역·성별·연령을 '중'으로 고려해 표본을 2만 명 내외로 뽑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향후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혼합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공론조사 참여 인원을 300명 내외로 확정하기로 했다.

공론조사는 '여론조사로 진짜 여론을 알 수 있는가'라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기존 여론조사는 '밀려 구조'에 관심 없는 아예제도 "어떤 개헌을 원하는가"라고 묻는다. 정보도 없으면서 고립된 개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다. 응답은 수동적이며 결과는 피상적이나 영향력은 막강해질 수 있다. '여론 조작'의 우려가 끊임 없는 이유다.

공론조사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은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듭하며 달리지 않는 추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설치지 않고 꼭 익힌 의견이라는 뜻이다. 1988년 미국 스탠퍼드대 제임스 피시킨 교수의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토대로 했다. 구체적으론 1차 설문→표본집단 추출→학습 및 토론→2차 설문 의 과정이다. 표

본집단 추출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1차 설문 의 의견분포를 동시에 반영한다. 표본집단은 통상 학습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 청취, 분임토의 등을 진행한다. 1차 설문에 비해 표본집단을 상대로 한 2차 설문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가가 포인트다. 참가자가 오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최민우 기자
choiminwoo@joongang.co.kr

오늘의 모바일 중앙
joongang.co.kr

[이해하기의 맛대리기] 500원, 식이영양제정량·특허기술서점 대상 '식이영양'
음식과 보양, 발효의 부패 경제에서 꽃핀 발효 식품

[더 오래] 조만호의 이렇게 살면 오래
"내 나이에 어울리는 유행은 맛 내지 않아요"

한겨레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열려

f t ↗ ★ ☰

+ -



'제14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를 가진 이정현(21) 씨가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직접 만든 커피를 나눠주고 있다. 이 커피업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황화성 원장)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9여개 점포에서 중증장애인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문기술직, 생산직, 서비스직 등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 300여 곳이 참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로레알코리아, 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오픈

송고시간 | 2018/03/14 11:48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로레알코리아는 14일 오전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로레알코리아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이갓에브리씽' 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공공기관 건물 등에 마련한 채용 카페로 2016년 10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에 1호점을 개점한 이후 전국에 약 20개가 운영되고 있다.

아이갓에브리씽 카페가 민간기업 사내에 개소하는 것은 로레알코리아 사옥이 처음이다. 개소식에는 안 르부르동 로레알코리아 대표이사과 김규철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본부장, 박은정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을 포함한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 르부르동 로레알코리아 대표이사(사진 중앙)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삼성동 로레알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로레알코리아점 개소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8.3.14 [로레알코리아 제공=연합뉴스]

커피 한잔으로 행복을 주는 카페 'I got everything'

천안시시설관리공단점 오픈..."전문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

기사입력 : 2016년1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8일 06:00

가 + 가 - 프린트  좋아요 6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이른바 행복이 찾아오는 카페로 알려진 'I got everything(아이갓 에브리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I got everything'은 중증장애를 가진 바리스타와 비장애인 바리스타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로 장애인들의 자립활동을 위해 기획된 카페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인 'I got everything'은 커피를 사고 파는 사회적 나눔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그림 참고).

◆ 행복을 주는 카페, 행복이 찾아오는 카페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점과 인천광역시청점에 이어 천안시시설관리공단 한들문화센터에서 'I got everything'의 제3호점 개소식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과 김동규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 임승안 나사렛대학교 총장 등 관계기관 대표, 천안지역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당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카페는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며 발달장애인 2명이 채용돼 바리스타로 일하게 된다.

'I got everything'은 복지부와 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2년부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공공기관 건물 등 50여 곳에 마련한 '꿈앤카페'가 전신으로, 이태원 경리단길의 '장진우 거리'로 잘 알려진 장진우 셰프가 직접 컨설팅 작업에 참여했다.

최근 세련된 인테리어와 질 높은 원두,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다. 모든 매장의 브랜드와 인테리어, 제품디자인 등에서 표준화 작업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모든 'I got everything' 카페 내부는 로고를 활용한 벽지로 된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메뉴보드와 입간판, 컵, 냅킨, 에이프런 등이 통일된 디자인으로 사용된다.

I got everything.

With us,
understanding and sharing
lead to happiness.

중증장애인 카페 10호점 돌파 기념 '온라인 이벤트'

장애인개발원, 5월 10일까지 SNS 통해 총 130명 선발

메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4-25 10:34:45

I got everything.
10호점 및 홈페이지 오픈 기념
SNS 이벤트

#카페igoteverything #www.igoteverything.co.kr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벤트 기간 2017년 4월 20일(목)~5월 10일(수)

일정자 발표 5월 15일(월) I got everything. 홈페이지 (www.igoteverything.co.kr)

참여 방법

- 1 I got everything. 로고와 함께 사진 촬영!
- 2 검색엔진에 나의 SNS 인증사진 등록!
- 3 게시물 댓글에 카페 함께 가고 싶은 친구 2명 소환!
- 4 아래 내용 추가 작성 시 당첨 확률 UP!
 - 카페 I got everything. 프리미엄 블로그에서 나오는 커피맛 이야기
 - 카페 I got everything. 10호점 및 홈페이지 오픈 축하 인사
 - 카페 I got everything. 직원에게 감사하는 글은 예매지

총 130명에게
당첨된 선물을 드립니다

1. 카페 I got everything. 로고와 함께 사진 촬영
2. 카페 I got everything. 로고와 함께 SNS 인증사진 등록
3. 카페 I got everything. 로고와 함께 게시글 댓글에 친구 2명 소환
4. 카페 I got everything. 로고와 함께 게시글 댓글에 친구 2명 소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의 10호점 돌파와 카페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의 10호점 돌파와 카페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카페 'I got everything'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는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사업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카페에 표준화를 적용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춰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 첫 선을 보였다.

이번 이벤트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카페 'I got everything'을 방문하고 사진을 찍어 개인 SNS 계정에 올리면 참여 가능하다.

○ 문의처: 직업재활부 직업재활팀 최한나 팀장(02-3433-0707)

유명한(02-3433-0725/서울,경기,인천,세종)

유민지(02-3433-0636/대전,광주,전라,제주)

이용미(02-3433-0637/대구,부산,충청,경상,강원)